

광주시 일자리·대중교통 혁신안 착수

이용섭 시장,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4년 로드맵 준비 지시 도시재개발 법률·금융 상담장구 신설 원주민 권익 보장

광주시가 일자리, 도시재개발, 공공(대중)교통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선 7기의 혁신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교통과 관련해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재정 지원 절감을 위해 시스템 전환을 개설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8일 간부회의에서 "민선 7기 출범 100일이 되는 오는 10월 8일 일자리 정책 4년 로드맵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일자리경제실에게 지시했다. 로드맵에는 4년간의 일자리 정책 실천 계획, 추진 일정 등이 적시된다. 이 시장은 "로드맵은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장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까지 도시재개발 정책 및 사업은 2007년 196억원이었지만, 2017년 524억

은 보장금, 높은 입주 부담금으로 인해 원주민을 내쫓는 것은 물론 세입자를 비롯한 원주민들이 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조차 받지 못하는 등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는 원주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금융 등 상담 지원 장구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주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 불편은 여전히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공교통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지난 2007년 196억원이었지만, 2017년 524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버스 일평균 이용객은 2000년 50만5000명에서 2017년에는 36만9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자가용의 수송 부담률은 40.9%인데 반해 시내버스는 33.5%에 머무르는 등 공공교통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지난주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도시 외곽으로 시가지 면적이 2.5배 이상 확대됐지만 대중교통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 방식과 관련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합의회의, 여론조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용하겠다는 뜻을 광주시의회에 전달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28일 향후 도시철도 2호선 등 광주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시장 취임 후 가장 강조한 것이 소통이고, 시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은 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과제는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 외에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인구·수요 예측의 적정성, 예상되는 재정부담, 저심도 방식의 배경 등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와 시의 답변이 이어졌다.

현대차 완성차공장 신설법인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적정임금협정 등의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시의회 도시철도 등 현안 공동노력 시장·시의원 간담회 통해 한목소리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 방식과 관련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합의회의, 여론조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용하겠다는 뜻을 광주시의회에 전달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28일 향후 도시철도 2호선 등 광주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시장 취임 후 가장 강조한 것이 소통이고, 시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은 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과제는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 외에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인구·수요 예측의 적정성, 예상되는 재정부담, 저심도 방식의 배경 등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와 시의 답변이 이어졌다.

현대차 완성차공장 신설법인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적정임금협정 등의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는 시민단체와의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시민권익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받은 후보 위원과 중립적인 인사 9-15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간담회 자료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도 시의회와 공유했다. 앞서 시의회는 시가 추진을 통해 요청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관련 예산 3억80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삭감했고, 광주형일자리 관련 완성차공장 사업 연구용역 예산 7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 외에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인구·수요 예측의 적정성, 예상되는 재정부담, 저심도 방식의 배경 등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와 시의 답변이 이어졌다.

현대차 완성차공장 신설법인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적정임금협정 등의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고용전략개발 포럼' 개최

광주시와 지역 경제·고용기관, 기업 등이 광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나섰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 광주경영자총협회, 인력양성기관, 지역기업 등은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미래성장 동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주제로 '고용전략개발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2회 지속가능경영 CEO포럼'과 통합 개최된 이날 포럼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병완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요로운 광주, 좋은 일자리 선언문' 발표,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의 '민선 7기 광주시 일자리정책과 방향' 발표, 박성수 광주 전남연구원장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전남 미래성장동력' 발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2회 지속가능경영 CEO포럼'과 통합 개최된 이날 포럼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병완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요로운 광주, 좋은 일자리 선언문' 발표,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의 '민선 7기 광주시 일자리정책과 방향' 발표, 박성수 광주 전남연구원장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전남 미래성장동력' 발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지역신문 발전세미나에서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왼쪽)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포털 업체 지역뉴스 반영 의무화

한국지방신문협 지역신문발전 토론회 정동영 대표 등 법안 발의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업체의 '지역 뉴스 확대'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관련 법 개정에 본격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주요 정당 지도부는 28일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지역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개최한 '지역신문발전 토론회'에 참석, 포털 사이트의 지역뉴스 의무반영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 방침

을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평화당 정 대표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에 지역 언론 기사 반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정 대표는 포털 사이트에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이른바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을 발의했고, 강 의원은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 비

율 이상 노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대표는 "여야 각 당의 대표들이 이번 토론회에 참여해 축하한다는 것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다"면서 "이 법안은 사실상 통과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톤발이 방식은 반 언론적인 동시에 반 지역적"이라며 "지역의 이용자들을 적극 유인하지만, 지역뉴스와 정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박지경 기자 jkpark@

전남 동부권 행정기관 한곳에

김영록지사, 제2 도청사 건립 지시...재원 확보 관건

전남 동부권 행정기관을 아우르는 제2 전남도청사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의 집중과 효율을 높이고자 동부권에 흩어져 있는 행정기관을 한 곳에 모으는 통합청사 건립 방침을 밝히면서다.

김 지사는 28일 순천에 있는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돼 제2 부지사 둘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동부지역본부에 행정부지사를 두겠다"며 "그 전이라도 동부권에 통합청사를 신속할 방침이니 관련 기관끼리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수용하는 통합청사를 구상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서부권(무안)에 있는 전남도청과의 거리감으로 행정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을 위해 동부권 제2부지사 신설과 청사 통합을 공약했다.

부지사를 늘리는 일은 전남 인구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해 청사 건립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최근 민선 7기 조직개편에서 동부지역본부에 있는 전남도 환경국을 환경산림국으로 확대·개편 했다.

김 지사는 "동부지역본부에 와 보니 민원업무 기능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며 "민원 업무를 더 보강해 도청에 가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소통 기능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청사 건립에 최소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 지원 등 재원 확보가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가 무분별한 청사 신축에 사업비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얻어낼 지가 관건이다.

동부권 현안과 관련해 김 지사는 "최근 대학 평가에서 순천대, 광양보건대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광양보건대의 경우 설립자 횡령 문제로 현재 위기에 봉착한 만큼 광양시가 주도하는 지원 방안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도안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